



봉축도 통일된 마음으로

오색의 옷차림에 하나된 마음으로 울동을 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불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부처님오심을 봉축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6~17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연등회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광복70년 기념 통일·평화 기원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연등회는 31만 대중에 운집한 가운데 여법하게 성료됐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2015 불자대상 수상자 정연만·김현집·구본일

25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불기 2559(2015)년 불자대상 수상자에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현집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3일 회의를 열고 제12회 불자대상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된다.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정연만 불자는 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 내 신도조직 활성화 및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또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재직 시부터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업무를 총괄하며 자연공원 내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현집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군불교총신대회 회장 소임을 맡아 간부불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고, 종단 및 군종교구, 신령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군내 신도조직



정연만 김현집



구본일

적극 노력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구본일 대표이사는 "불교 TV를 한국불교 대표방송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한편 불교문화콘텐츠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불법홍포에 기여하고 미주지역 방송 송출을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지난 2004년 불자대상을 제정, 불법홍포에 공로가 큰 불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식·축제 '한마당' 30만 佛子 '한마음'

16일 간화선 무차대회·연등회 성대히 개최 전국 불자 광화문 결집... 불교 위상 높여

깨달음의 법석과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축제의 자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앞서 진행된 축제인 연등회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불교 사상 최대 법석을 보여줬다.

조계종은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1만 명의 불자로 가득찼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철저히 공부해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음 평화 수행법으로 '간화선'을 제시했다.

진제 스님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로지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지도록 하루에도 천번만번 반복해서 챙기고 의심하면 대지혜와 대인력, 대자유와 대평화를 영원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희생된 영령과 세월호 참사, 내팔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과 내팔 대지진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희생되신 모든 영가들께 서도 삼독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극락정토에서 안락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화선 무차대회는 불교적 통일 담론을 담은 '2015 불교

통일 선언'과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이 각각 발표됐다.

이날 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랜 분단의 고통을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 길에 불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기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기부처 오심을 찬탄하는 축제의 장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도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5월 16일

진제 스님, '본래면목' 법문
통일선언·평화 기원문 발표
연등회 등 봉축행사도 진행
10만 오색연등 도심 수놓아

오후 6~8시 서울 동대문과 광화문 광장 구간에서 제등행렬을 진행했다.

연등회의 백미인 제등행렬에는 사찰별로 준비한 장엄등과 개인등 10만여 개가 서울 도심을 장엄했다. 제등행렬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등이 행렬등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번 등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은 한마음등, 평등공법등까지 다양한 모양의 장엄등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한편 불기 2559년 연등회는 5월 1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별취재팀=신성민·노덕현 기자
정혜숙·박아름 기자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중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은	총무원장	자승
중앙중회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자광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가톨릭 등 이웃종교,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 이어져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독교계와 민족종교 등 이웃종교계도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웃종교계는 그동안의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계가 앞장서 사회화합과 자비실천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먼저 가톨릭 영수정 추기경(서울 대교구장)은 5월 15일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울려 퍼져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글을 보냈다. 특히 영 추기경은 "불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 이번 봉축표어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대화합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양 종교 신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OCK) 총무도 같은날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희생자들과 실종자를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세상에 가장 밝은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 고승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를 연 만큼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함께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정한호 성군관장 직무대행은 유교와 불교가 역사 속에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점을 들며 현재 물질문명으로 인한 폐해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정 관장 직무대행은 "물질은 풍요로운 반면 정신은 점차 빈곤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참사를 겪었고, 세계는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져가고 있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법문을 통해 종교와 문화, 인종과 나라를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종교를 대표해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은 국민은 지금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심과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나눔과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5년 봉축특집호 - 60면 발행	
A 특집·무차대회 세계 고승 인터뷰	5
특집·봉축법어	7·8·9·10
특집·통일·평화위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제언	12·13 14
B 특집·청년불자, 한국불교의 희망	1·2·3·5
특집·봉축화보	12·13
C 특집·감사편지 당선작	1~7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